

안경환의 '법과 문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

7·30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창당 4개월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처참하게 추락했다. '안철수 현상'을 몰고 왔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도 갈 곳 없고 표류하고 있다.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난 수년간 되풀이해 온 일이다. 진부한 개그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잠시 웃고 넘기지만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허무 개그 말이다.

신사 정치인 손학규의 퇴진은 애잔하다. 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가 내걸었던 '저녁이 있는 삶', 그가 추구하고 상징하던 균형과 통합의 철학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널리 계승되어야 할 미덕이다.

일부 지역에서 '아권 언덕'가 힘겹게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동반 패배였다. 결핍하면 패배의 책임을 군소정당의 몫으로 돌리는 정서적 유희는 여전하다.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의 이적형 위원이 선출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견고한 동서분리의 구도를 깨는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호남=아권'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던 구태정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실령, 박근혜대통령의 측근인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예산폭탄'의 실리에

현혹된 지역민의 이기심의 소산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승리는 동쪽 땅에서 일어난 일과 대조된다. 새누리당 일색인 울산 지역에서 무소속의 송철호 후보가 일곱 번째 고배를 마셨다. 야권 출신인데다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해묵은 지역감정이 낙선의 주된 이유였다. 실로 한심한 일이다.

'비상'으로 출범한 박영선 임시대표 체제가 고전하고 있다. '새월호 특별법'을 두고 대 여당 협상에서 백기 투항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기족과 시민사회의 비난에 이어 당내 여론의 반발도 거세다. 급기야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일수불퇴' 카드를 쥔 새누리당이 선선히 응해 줄리 없다.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안정당으로서 희망을 버리는 사람조차 생기고 있다. 필자는 2012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의 사분오열, 지리멸렬, 이합집산의 모습에 크게 분노한 적이 있다. 선거를 치른 것은 문재인 후보였지만 민주당은 아니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다. 그때 그 모습이 여태껏 조금도 변치 않고 있다. 7·30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으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점연한 내부의 권력투쟁이었다. 이래라리런 희망이 없다. 2015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권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도 보다 나은 정래 희망을 걸 수 있다. 국민은 도전하는 야당, 선거에 이기는 야당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당의 이념과 철학이 시야만 한다.

이른바 '진보'의 색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체질화할 것인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과제다. 한때 청년세대의 희망의 등불이었던 야당이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노쇠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새누리당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일수불퇴' 카드를 쥔 새누리당이 선선히 응해 줄리 없다.

가히 나라의 상태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추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도기 큰 짐을 진 박영선 임시대표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성공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시의적절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그 열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갖추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과 체면 속에

국민은 정권 연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 환골탈태, 거듭나기 바란다. 전당대회의 물을 일찌감치 확정하여 경선 과정에 잡음이 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성될 새 지도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개월 후 치를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의 모든 사회 조직과 인문 환경, 그리고 각종 정보기관의 태도는 가히 편파적일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다. 이 엄청난 불리를 극복하는 길은 진정한 반성과 철두철미한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얻는 수밖에 달리 없다. 그리고 잠재적인 후보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충분히 이른 시기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2017년 대통령선거는 제대로 전열이 정비된 승부를 치르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한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 실험이 유년의 환각으로 결말나지 않기를 바란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 자라나기 바란다. 여전히 그는 대한민국 미래 정치의 값진 자산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칼럼



김성덕 화정교회 담임목사

롤러코스터 인생

릴감은 세계 30위입니다.

저는 T-익스프레스에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거의 바닥에 곤두박질치듯이 떨어지고, 다시 위로 치솟았다가 빠른 속도로 위 아래로 굴곡진 코스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탑승 소감이 어떠냐고요? 제가 기절하지 않고 제 발로 탑승 기구에서 내렸다는 게 기적입니다. 최고의 스릴을 맛보게 하는 놀이기구라서 어느 놀이동산이든지 롤러코스터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래서 'roller coaster career'(카리어)를 파란 만장한 생애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감과 무서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분을 짧은 시간에 느끼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우리 인생도 좀 긴 시간이지만 차이를 두고 다양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바다에 가보았습니다. 서해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되었을 때 드러난 해변가는

아름답지 만은 않았습니다. 모래는 좋아 보였지만 그곳에는 유리 조각도 보였고, 음료수 캔들, 불꽃놀이 도구들,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상처를 입은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오면 그런 것들이 다 덮여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바다는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의 조수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수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시니까? 아니면 굴곡 있는 삶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사는 때가 더 많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 매미 소리가 친근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기나긴 인고의 시간입니다. 매미 애벌레는 땅 속에서 나무뿌리와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3년에서 7년을 보낸 뒤, 주로 7월에 세상 밖으로 나와 껍질을 벗고 성충으로 변합니다. 애벌레가 성충으로 우화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6시

간이나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화를 갖 마친 매미는 녹색을 띠다가 2시간 정도 지나면 황게 되는데 이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매미지만, 땅 속에서 보낸 오랜 인고의 시간에 비해 땅 위에서의 삶은 고작 한 달 남짓입니다. 한 달 동안 힘찬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서 매미는 수년 동안의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자세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좋은 날'이라는 노래에서 3단 고음을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누리던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은 모두 흩어져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연습생 신분으로 기획사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할 때, 자신은 돌아갈 길이 없어서 '여기서 정신 줄을 놓으면 난 실패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악물고 더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인내와 노력의 결과가 오늘날의 아이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조금 힘들고 낙심되어도 오늘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올 겁니다.

기고



장률 전 광주 송원여자고등학교 교장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과 교육

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건 하나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인데, 너무도 안일하게 가르쳤다는 후회가 이제야 밀려온다.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영어를 사용하는 매너에 대해 가르쳤다면 학생들이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는 태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는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 입시에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도 그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입시로 인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위 '기타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가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다. 가정에서 체득하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교육으로 체화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 지는 것이다. 우리 학교 교육은 이러한 차이를 돌볼음 의도적인 학습의 대상으로 하여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만들

어 편재하고 있다. 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경험을 가정과 수업에서 경험하면서 기본적인 돌봄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함양된 돌봄의 역량을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은 물론 일과 이웃, 사회를 돌보는 역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다.

또한, 가정과 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의사소통 문화를 정립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이다. 개인 간의 가치 갈등, 개인과 집단 간의 가치 갈등, 집단과 집단 간의 가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는 비밀비재한 일이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의사소통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에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이 바로 가정과교육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끊임없는 지식 습득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깊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가정 과목은 '힐링(Healing)' 교과목이다.

그러나 학교 자율 교육과정 운영 확대로 인해 입시와 거리가 먼 교과목이라는 이유로 가정과교육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생활교과가 여성에게만 필

요하다든지, 저절로 길러질 수 있으니 교육의 후순위로 미루어도 된다는 전근대적 고정관념이 학교 현실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에 대한 진정한 돌봄과 헌신을 제공하는 책임감을 가진 어른으로 키워가는 데 필요한 교육은 가족에 대한 돌봄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 피폐해진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학교와 국가, 지역사회, 가정 협력해 인성교육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허한 외침으로만 그쳤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의미 또한 잘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을 배양하는 데 있어 가정과 교육이 가진 교육적 가치는 그 크기를 가능하기 어렵다.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아서 안 된다.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사랑의 가치가 우리나라 미래 주역인 학생들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가치 지향적인 가정과 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중단해선 안 된다

무등산을 찾는 광주시민들은 지난 3년간 분기별로나마 정상 3봉과 주상절리의 비경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무등산 정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 측이 앞으로 정상 개방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군부대 측은 최근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양 기관에 통보했다. 부대 측은 정상 개방 전면 불허 이유로 군사보안과 국토방위 업무의 공백 발생, 행사 당일 부대 내 질서 유지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천왕봉·지왕봉·인왕봉으로 이뤄진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군부대와 협의 끝에 2011년 5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에 개방 행사를 허용했다. 4차로써 정상 개방 행사가 열렸고 지난해까지 10차례 이어지면서 매년 2만~3만 명이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올해는 첫 개방일을 지난 4월 12일로 계획했지만 공군부대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행사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하반기로 미뤄졌다. 한데 부대 측이 갑자기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시민들은 시와 협의의 아래 진행됐던 정상 개방을 굳이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공원 승격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정상 군부대 이전과 군사시설로 훼손된 자연의 원상 복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등산 정상상의 주인은 군부대가 아니라 광주 시민이다. 과거 국방 전략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둔해 온 군부대는 최첨단 전자전 시대를 맞아 더 이상 확보에도 뜻이 없었다. 사업들이 가지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양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상생을 위한 협의의 출발은 좋다. 지난 7월 1일 단채장 취임 후 2개월도 안 된 시정임이어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나머지 6개의 계획도 가급적 해가 바뀌기 전에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곧바로 실무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양 시·도는 모처럼 마련된 상생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상생 프로젝트 초반에 속도 내라

광주시에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내건 '상생' 슬로건의 첫걸음을 뒀다. 7년 전부터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운영 중인 발전연구원을 이르면 연말 안에 통합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단 제작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 성공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상생 프로젝트와 함께 서둘러 추진하기 바란다.

우선 지난 2007년 둘로 갈린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다시 '한 식구'가 되는 작업에 탄력이 붙는다니 반갑다. 운영한 광주시장과 이남연 전남지사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곧바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 통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는 기초 준비에 착수했으며 임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유력하다.

발전연구원을 하나로 묶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각기 특성이 다른 연 구 분야와, 인원 재조정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양측이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동반 발전

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한다.

광주와 전남이 합의한 상생 과제로는 발전연구원 통합 외에도 신(新) 영산강 시대 광주·전남 발전 대책 수립, 문화 관광활성화가 있다. 나주의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및 무안공항 발전 방안, 제2남도고속 건립, 한빛원전(영광) 안전성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사업들이 가지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양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상생을 위한 협의의 출발은 좋다. 지난 7월 1일 단채장 취임 후 2개월도 안 된 시정임이어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나머지 6개의 계획도 가급적 해가 바뀌기 전에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곧바로 실무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양 시·도는 모처럼 마련된 상생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천으로 만든 그녀의 작은 손가방은 화수분이었다. 가방에서는 책이며 양초·염서·조개껍질 등이 깔도 없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물을 받았다. 인터뷰 중 “작은 가방이 무슨 보물상자 같다”고 했더니 그녀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소박한 선물이 들어 있던 이해인 수녀의 그 작은 손가방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선물에 얽힌 이야기는

를 썼다. 밥풀을 짓이겨 만든 작은 십자가와 식빵 봉투를 묶는 작은 끈을 이어 짚신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후 7명은 한발한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녀는 느슨하고 안일한 삶을 살 때마다 자신의 방에 놓여 있는 그들의 편지와 선물이 힘이 된다고 했다. 언제나 용기를 주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해 준다고 했다.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많은 이들이 진심이 담긴 선물을 건넸다. 유족들과 수백 km도 보행진을 함께 한 세월호 십자가, 위안부 할머니가 그린 ‘꽃다 핀 꽃’, 장애인 이발로 접은 종이학, 3개월간 손으로 일일이 자수를 놓아 완성한 교황의 초상화. 그리고 방한 내내 달고 다녔던 노란 리본까지.

교황은 위안부 할머니와 세월호 유가족에게 목자를 선물했다. 어쩌면 국민 모두가 큰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보낸 위로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줬다. 교황이 전해 주고 간 마음의 선물은 오랫동안 윤희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거라 생각한다. /김미은 문화 1부장 mekim@

교황의 선물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문화사 업 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 F A X 222-8005 > | < F A X 222-0195 > |
| 정 치 부 2200-642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 F A X 227-9500 > | < F A X 227-9500 > |
|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세 울 지 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프로젝트 팀 2200-555 | <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